# 제로전진 무한후퇴

(고후2:1~17)

1.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로전진 무한후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로전진 무한후퇴!
얼마 전에 신문 경제란에서 LG에 대한 기업평가, 뭐 전반적인 기업평가라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업에 있어서의 지금 경영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는 거예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서 지금 팔리기 시작한 게 몇 개월 됐는데, LG의 스마트폰 사업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LG 스마트폰의 브랜드 상승을 위한 마케팅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마케팅비를 먼저 집행한 그 여파로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것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고 기업 경영진들은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죠?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일보전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결과를 보니까 이 보, 삼 보 후퇴를 한 경우, 또 일진일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을 위해서, 또 기업경영에 관계돼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일진일퇴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전진 제로의 무한후퇴만이 신앙의 삶을 신앙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진제로 무한후퇴.
제로전진, 그러니까 0보 전진 무한후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이 삶을 영위하는 현장에서 얻게 되는 승리라는 것은 상황의 호전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승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의 삶에서의 승리에 대한 개념정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보전진 이보후퇴, 일진일퇴, 뭐 이보전진 일보후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삶에서의 승리란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전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왜 승리로 여겨질 만큼 귀중한 일이냐?
이게 쉽지 않아요.
상황이 주어지고, 호전되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는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 상황에 접근합니다,
이게 소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개선하고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대상들에 의해서 휘말려서 휩쓸려가고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내 마음을 지켜냄으로써, 내 마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 휩쓸려가지 않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일이 신앙인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보여 지는 결과들은 성공과 실패가 없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무조건 성공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무조건 승리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거기에는 잘잘못이 있을 수 없고 실패와 성공이 따로 세상기준에 따라서 있을 수 없습니다.
순교를 해도 승리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같이 되어도 승리이고,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완전히 접게 되는 것도 승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마음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되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전진제로입니다.
상황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는, 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무장하고 불굴의 의지로 어떤 장애가 있어도 뛰어넘겠다는 결단을 하고 앞으로 돌격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써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되고 있는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승리입니다, 승리.
근데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로마에서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이겨서 개선장군이 되어 귀환할 때에, 로마시내로 들어오면, 황제한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개선 행진이 그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승리의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이 향불이 얼마나 크고 향이 짙었는지 온 로마시내 주변에 향이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의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포로 중에 우두머리를 끄집어내서 처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은, 개선한 장군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명예의 향기인 반면에, 죽게 될 운명에 놓인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악취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승리의 향기인 반면에, 멸망 받을 자들에게는 바로 사망의 악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잘못된 영적상태를 시정해 주기 위해서, 편지로 주고받고 왕래가 있고 지금 이러한 와중에 있는데, 승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성경 속에서 군데군데 암시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승리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이 사건을 알아채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1절에 보면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전제합니까?
고린도교회의 영적상태에 대한 근심을 안고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 슬픔, 비탄, 비애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다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내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짚어가면서 영적원리와 영적세계의 사실들을 눈앞에 펼쳐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잘못된 것이 보이면 시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 것인데, 고린도교회의 상태가 더 악화돼 버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해들은 사도바울의 마음이 다급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고린도전서에서 변경된 계획이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방문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계획 다 미루고 전혀 계획에 없이 돌발적으로 고린도교회를 방문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너무 다급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호전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뉘우치기는커녕 더욱더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고린도교인들의 영적상태에 비탄을 느끼고 비애를 느끼면서 분노하면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록된 바가 없는데, 이 방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길게 지탱되지 못하고 또 금방 에베소로 귀환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학자들이 이 사실을 밝혀낸 거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준엄한 편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면서 준엄한 영적사실과 기준들을 제시해서 쓴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지금의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데,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로 가고 있는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미루고 있냐 하면, 이 눈물의 편지라는 거, 돌발적인 방문이 갑자기 중단되고 귀환해서 쓴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다시금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교인들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고린도교회의 방문을 지금 늦추고 미루고 있는 중에 디도가 왔어요.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대부분의 고린도교인들이 이번에는,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를 해서 돌아섰는데, 일부 사람들이 더 극단적으로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근심어린 마음을 갖고 방문했다는 게 바로 그 방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디도의 소식을 듣고 확신하고 있는 이 승리를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더 악화되어 가는 영적인 현실을 소식으로 접하고 비탄에 가득 찬 마음으로 돌발적인 방문을 했다가 왜 갑자기 돌아왔을까요?
성공적으로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하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 영적인 악행을 거듭하고 있는 고린도교인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비탄과 비애와 슬픔과 근심과 분노가 있어서 찾아가서, 그 마음으로 영적인 상태를 호전시키려 했는데, 그만 사도바울이 아차! 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고린도교인들에게도 교회 안에 그 누구의 마음에도,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원리는 뭐냐?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 있느냐?
사도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라야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라야 고린도교인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들

에게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나타나시는 것이 보일 때, 거꾸로 사도바울에게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만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기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대방이 보면서 상대방이 기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면서 기쁨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도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고린도교인들의 영적상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돌발적인 방문을 했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고린도교회 상황이 더욱 악화 일로를 걷는다고 해서 그 상황을 내가 호전시키겠다고 그 상황으로 진격해 돌격해 들어와 가지고,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을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구나!'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걸 깨닫고 쓴 게 눈물의 편지인데, 이 눈물은 사도바울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기준을 준엄한 편지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회개의 역사, 고린도전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지마는 주님이 설교를 하셔도 안 듣는 사람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섭리 가운데서 사도바울에게 깨우쳐준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 민수기 20장에 므리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무엇하러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우리 자식과 이 짐승과 이것들을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론과 모세가 총회를 모아 놓고 반석 앞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너희가 어떡할 거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게 완전히 쥐구멍을 찾을 일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손을 들어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은 일어났지만, 모세와 아론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1절에 사탄의 계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갔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상태가 패역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차피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낸 것도, 자기 힘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보고, 끄집어내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패역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패역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에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 심장을 꺼내서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당연히 이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인데 도대체, 그 당시 슈퍼 강국이었던 애굽을 망하게 할 정도로 기적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수~없이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 이끌어 가는 하나님을 알면서, 너희가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음을 뺏겨 버린 겁니다.
마음을 뺏긴다는 게 뭐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마음 심장을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꺼내 주든 뺏기든 간에 마음이 딴 데로 이식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한 믿음 상태로 내 마음이 빼앗겨버려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지금 영도자의 입장에서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패역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모세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심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구별되는 거겠어요?
감옥에 죄수를 집어넣는 것이 뭡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 격리가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격리되고 구분되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패역한 상태에 있는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구분되고, 다르게 구분되고, 좋은 쪽으로 다르게, 다르게 구분되고, 구분되고, 구분되어서 더 이상은 없을 정도로 좋은 상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길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마음으로 휘말려 버렸던 거예요.

사도바울이 똑같은 일탈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편지를 읽었으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더 악화 일로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고, 마음이 그만 고린도교인들의 패역함에 휩쓸려버려서, 방문을 해갖고 자기가 진격하고 돌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승리의 향기.
도대체 이 향기를 피우게 되는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전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고린도교회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질 때까지 멀리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삶의 원리요, 승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한한 후퇴를 감행할 수 있습니까?

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람의 상황이든 사건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돌격하고 진격하고 전진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호전시키는 게 내 생애의 승리가 아니라, 이 상황을 앞두고 있는 내가 마음을 상황에 빼기지 않고, 그 상황으로부터 무한히 후퇴함으로써,
어떻게?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어 무한히 후퇴함으로써,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민수기의 말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승리를,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무조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제로전진 무한후퇴의 승리의 원리의 길을 따라, 하루가 살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로전진 무한후퇴의 삶의 원리를 통해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가든 승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